

‘미디어 기호학’ 창안한 한국방송학회 회장, 백선기 교수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기호학’ 이 해결해준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한 마디 한 마디 주고받은 대화는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기호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호학의 본질이자 매력이지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백선기(52) 교수는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찾는 데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언론학자이다. “내가 오로지 잘할 수 있는 것은 기호학뿐”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백 교수는 우직한 성품답게 기호학으로 미디어를 분석하는 학자로서 외길을 걸어왔다. 1995년에 출간된 《보도의 기호학》은 백 교수가 가장 아끼는 책이자 국내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으로 신문보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론과 분석사례를 묶은 책이다. 이후 백 교수의 연구는 선거보도, 언론보도, 텔레비전 보도, 방법론으로는 전기 기호학, 후기 기호학, 담론연구, 서사분석, 문화연구로 이어졌다. 문화연구는 특히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올해 출간된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은 기호학적인 개념과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을 통해 살인, 추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영화 텍스트의 의미를 밝혀냈다. 최근에 나온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은 30년 가까이 미디어를 분석하고 연구해 온 결정체로서 백 교수가 세계 최초로 ‘미디어 기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특히 백 교수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기호학을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세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온갖 미디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수많은 메시지에는 드러

나지 않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게 ‘기호학’(Semiotics)이다. 우리 삶은 기호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가 B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장미꽃을 선물한다고 하자. ‘장미꽃’이라는 기호는 A에게는 사랑을 의미한다. B가 사랑으로 받았다면 A와 B는 장미라는 기호를 사랑이라는 의미로 공유하게 된 것이다.

백 교수는 미디어 현상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숨바꼭질하는 것이며, 수수께끼 같은 것이고, 퍼즐을 푸는 식이라며 기호학을 처음 접했던 때를 회상했다.

“1979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기호학을 처음 접했어요. 신문방송학과 박명진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학생들에게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을 소개했죠. 나는 미디어 메시지 분석에 심취해 있었는데,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을 처음 접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에 매료됐죠. 교수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정도였으니까요.”

미네소타대학에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면서 기호학을 평생 학문적인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우리나라 신문방송학분야에서 미디어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난해 11월, 19대 한국방송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백 교수는 임기동안 순수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지니기 위해 방송학 등 아카데미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가장 큰 성과로 올해 한국 방송 8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재조명했고, 신문방송학 대학원생들과 여러 젊은 학자들을 위한 콜로키움(colloquium)을 통해 방송학에 대한 진전과 발전을 꾀했던 점을 회고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방송학회 회장 입장에서 “그동안 KBS가 해왔던 방만한 운영, 이익을 시청자들의 권익으로 되돌려주지 못한 점과 특정 권력과의 친밀관계 등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도모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동의할 못하는 상황이지, 시간적으로나 여러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시청료 인상은 적정선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앞으로 국제적인 석학들에게 한국의 미디어 기호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프랑스, 독일, 남미 등 국제 기호학의 석학들과 교류를 통해 한국적인 독창성을 지닌 기호학을 창안하고 적용해서 아카데미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우리 책을, 우리 이야기를, 우리 사상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전파해야죠.”



